

가부키

힘차고 흥미진진한 전통 연극

‘가부키’는 ‘노’, ‘교겐’ ‘분라쿠’와 더불어 일본의 4대 전통연극 가운데 하나이다. (2008년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부키’는 평화로웠던 에도 시대(1603-1867)에 250년 이상 발전하였다. 이 시대에 발달한 상인 문화의 취향이 ‘가부키’의 화려한 의상과 장면, 공연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극 중에는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의무를 함께 추구하려 하는 전설적인 영웅들과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등장한다.

다른 고전극과는 달리 오늘날에도 ‘가부키’는 각광을 받으며, 도쿄의 가부키자, 교토의 미나미자, 오사카의 쇼치쿠자와 같은 전문 극장에서 열광적인 관객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



오쿠니 동상

이즈모 다이샤의 미코(巫女, 신직에 있는 여성)였던 오쿠니는, 가부키의 창시자로 알려진다.

가부키의 역사

가부키가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공연자들은 주로 여성이었다. ‘가부키’의 유래는 1603년 이즈모 신사의 무녀이었던 오쿠니(16-17세기)가 교토에서 처음 공연한 춤과 가벼운 극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가부키’라는 말은 ‘충격적인, 정통이 아닌 혹은 유행에 민감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의미들이 오쿠니의 유명한 극단과 아류 극단의 공연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오나(여자) 가부키’ 극단의 주요 사업 수단이 매춘이라는 점에, 도쿠가와 막부가 반대하여 1629년 극단을 해산시키고 여성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이후 ‘와카슈(젊은 남자) 가부키’가 유행하였지만 1652년 젊은 남자 배우의 매춘이 도덕적인 문제가 되어 이 또한 금지되었다.

여자와 젊은 남자 모두가 가부키를 할 수

없게 되자, ‘가부키’는 나이 든 남자 배우들의 극이 되었다. 막부는 ‘야로(남자) 가부키’를 공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지만, 연기자들에게 음란한 표현을 피하고 ‘교겐’ 극의 현실적인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였다.

법적으로 남자배우의 출연이 허가된 후 1세기, ‘가부키’는 여러 부분에서 발전을 하였다. 특히, ‘온나가타’(여성으로 가장한 남자 배우)의 역할이 더욱 세련되어졌다. 에도 시대에 들어와 제1대 이치카와 단주로(1660-1704)에 의해 힘 있고 남성적인 ‘아라고토’(거친 연기) 연기 스타일이 개척되었지만, 교토, 오사카 지역에서는 제1대 사카타 도주로(1647-1709)에 의해 섬세하고 현실적인 ‘와고토’(부드러운 연기) 스타일이 발전하였다.

‘가부키’ 무대는 ‘노’의 무대로부터 서서히

발전해 왔는데, 복잡 다종한 연기를 용이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무대에 막이 추가되었다. 관객의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미치’ 통로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표준이 된 ‘가부키’의 화려한 입·퇴장의 장이 되었다. 회전식 무대는 1758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18세기 상인 문화 속에서 ‘가부키’는 ‘분라쿠’의 인형극과 경쟁 관계이자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하였다. 일본 최고의 극작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지카마쓰 몬자에몬(1653-1724)은 1703년 이후 인형극을 집필하는데 집중하였지만 ‘가부키’만을 위한 극을 여러 편 썼다. 이 무렵 교토, 오사카 지역에서는 인형극이 더 유행하여 일시적으로 ‘가부키’가 쇠퇴하였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부키’에 많은 인형극 공연이 포함되게 되었고 연기자들도 인형의 독특한 동작을 흉내내기 시작하였다.

‘가부키’는 상인문화의 일부가 되었지만, 1867년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자 ‘사무라이’ 계급이 사라지고 상인 문화가 기초가 되었던 사회 전체 구조도 변화하게 되었다. ‘가부키’에 서양의 옷과 사상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고 제9대 이치카와 단주로(1838-1903)와 제5대 오노에 기쿠고로(1844-1903)와 같은 주요 배우들은 고전 ‘가부키’의 내용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였다. 20세기에 ‘가부키’의 전통 가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오카모토 기도(1872-1939), 미시마 유키오(1925-1970)와 같은 작가들이 ‘신 가부키’(새로운 가부키) 운동의 일부로 극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극들은 전통적인 형식과 현대극의 새로운 형식을 결합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고전적인 ‘가부키’의 상연 목록에 흡수되었다.

‘가부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출과 가부키 연기자 가문의 긴밀하게 조직된 계층 모두가 전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오늘날의 ‘가부키’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다. ‘가부키’의 유명 배우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인에 포함되며, 텔레비전과 영화 그리고 연극에서도 전통적인 역할과 현대적인 역할 등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온나가타’(여자 역)로 유명한 제5대 반도 다마사부로(1950-)는 ‘가부키’가 아닌 다른 극과 영화에서도 거의 여자역으로



연기를 했으며, 또한 몇 편의 영화에도 연출했다. 1998년에 가타오카 다카오(1944-)가 제15대 가타오카 니자에몬으로 ‘슈메이’(옛 일류 배우의 이름을 물려받음) 행사를 했을 때에는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이 방송을 했다.

2005년에는 가부키 배우 나카무라 간쿠로가, 제18대 나카무라 간자부로의 이름을 계승하여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을 대표하는 가부키 전문 극장인 가부키좌는 1889년에 세워져 2002년 일본 정부의 등록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재건축 중이었던 ‘가부키자(가부키 공연장소)’는 2013년 기왓장이나 난간 등 전통적인 건축 특징을 보존한 채로, 베리어 프리 도입 및 내진성 향상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극장으로서 완성되었다.

가부키의 극적 요소

극

‘가부키’는 크게 3종류의 극으로 나뉘어 진다. ‘지다이 모노’(역사극), ‘세와 모노’(사회극), ‘쇼사고토’(춤 소품)이다. 오늘날 공연되는 절반 정도의 극은 원래는 인형극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극은 ‘사무라이’와 관련한 동시대의 사건들을 각색하여 만든 것으로 도쿠가와 막부의 검열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은 에도 시대 이전으로 설정되었다. 그 예로는



‘가나데혼 주신구라’라는 유명한 극이 있는데 이 극은 1701년에서 1703년에 있었던 47명의 ‘로닌’(주군이 없는 ‘사무라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배경은 무로마치 시대(1338-1573) 초기로 설정되어 있다.

사회극은 역사극보다 대화나 의상 모두 현실적이다. 당시, 새로 만든 사회극은 관객들에게는 뉴스 리포트와 같은 존재였다. 왜냐하면, 극 중에서 최근에 발생한 스캔들이나 살인 또는 자살들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회극의 변형으로 ‘기제와 모노’가 19세기 초반에 유행하였다. 이 극은 사회 하류 계층의 사실적인 묘사로 유명하지만 점점 지루함을 느끼는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교한 무대 기술과 폭력과 충격적인 주제를 사용한 선정주의를 추구하였다.

배우와 역할

‘가부키’는 유명 배우의 재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많은 ‘가부키’ 팬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가부키를 선호하지만 대부분은 역할이나 극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배우를 보기 위해 가부키자를 찾는다.

배우들은 전통 연기자 가문에 소속하며, 각 가문들은 고유의 특별한 스타일과 역할에 대해 개성있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유명한 ‘가부키’ 가문은 현재 제12대 이치카와 단주로(1946-2013)가 이끌고 있다. 이치카와 단주로의 이름을 계승하는 배우는 자신의 전임자의 배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마스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특징도 부각시켜야 한다. 또 다른 유명한 가문은 제12대 오노에키 쿠고로(1942-)와 제4대 사카타 토슈로(1931-)가 이끄는 가문이다.

‘가부키’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자 배우인 ‘온나가타’의 출현이다. ‘온나가타’의 이상형은 단순히 여성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다움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 여자 배우를 ‘가부키’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 ‘온나가타’를 여자 배우로 교체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온나가타’는 ‘가부키’의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가부키’에서 중요한 연기의 특징은 정형화

된 몸동작과 형태(‘가타’)의 표현이다. 이는 춤과 같이 정형화된 싸움 연기(‘다테’)와 ‘하나미치’를 통해 등장(‘단젠’)하고 퇴장(‘룻포’)할 때의 특별한 움직임도 포함된다. 어쩌면 ‘가부키’의 가장 중요한 ‘가타’는 ‘미에’(과장된 동작)일 것이다. 장면의 클라이맥스에서 배우는 정형화된 연속 동작을 마친 후 완전히 정지하고 시선을 고정된 채 허세를 부린다. 훨씬 대담한 ‘가타’는 사회극에서보다는 역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의상과 화장

사회극에서 사용하는 의상이 에도 시대의 복장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라면, 역사극은 화려한 문직 의복과 ‘노’ 극을 연상시키는 큰 가발을 사용한다. ‘온나가타’의 춤 소품에 사용되는 의상은 특별히 미적 감각에 주의 기울인다.

‘가부키’의 상징 중 하나는 역사극에 사용되는 ‘구마도리’라는 요란한 화장 기법이다. 마치 가면과 같은 이 화장 기법은 약 50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용하는 색깔과 디자인은 배역의 주요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붉은색은 ‘선’을 의미하며 지덕, 열정 또는 초인적인 힘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반면에, 파란색은 ‘악’을 상징하여 질투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특징을 표현한다.

가부키의 음악

‘가부키’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는 현이 3개인 ‘샤미센’이다. 무대에서 공연할 때 사용하는 음악의 종류에는 1명의 전통 가수나 영창을 하는 사람이 1개 이상의 ‘샤미센’과 때로는 다른 악기들과 함께 감성적인 음악인 ‘나가우타’를 하거나, 다른 몇몇 종류의 이야기 음악이 있다. 표준적인 ‘나가우타’의 합주에는 몇 명의 ‘샤미센’ 연주자와 전통 가수, 북과 피리 연주자가 포함된다.

무대 음악을 하는 가수와 ‘샤미센’ 연주자, 피리와 다양한 북들이 무대 바깥 쪽으로 설치된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배경 음악과



효과음을 자아낸다. ‘가부키’에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효과음에는 두 개의 ‘효시기’(나무토막)을 함께 치거나 널빤지에 쳐서 내는 인상적인 소리가 있다.

대표적인 가부키 극

역사극: 간진초

많은 사람들은 지다이 모노(역사극)가 가장 유명한 ‘가부키’의 상연 목록이라고 생각한다. 지다이 모노는 ‘노’극 ‘아타카’에서 개작되었다. 총명한 무사였던 미나모토 요시쓰네(1159-1189)는 요시쓰네의 충성심을 부당하게 의심하는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이복형인 미나모토 요리토모(1147-1199)를 피해 북쪽으로 도망을 쳤다. 요시쓰네는 전설적인 충신인 벤케이의 집꾼 중 한 명으로 가장을 한다.

가가 지역(현재 이시카와현의 일부)의 아타카에서 방책 검문소를 맡고 있던 관리 도가시 사에몬은, 극 중 소개말에서 ‘아마부시’(불교 수행자)로 변장하고 북쪽으로 여행하는 것 같은 요시쓰네를 잡기 위해 방책을 설치했다고 설명한다.

요시쓰네와 그의 일행은 ‘하나미치’를 따라 무대로 들어간다. 일행은 필요한 신원 증명서가 없었지만 일행의 장인척 연기를 하는 벤케이가 도가시에게, 일행은 나라의 도다이지 사원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중이라며 거짓말로 속이려 한다. 이 말을 의심한 도가시는 벤케이와 대면하여 정말 기부금을 모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벤케이에게 그들이 운반하는 물건에 대해 세부 항목(‘간진초’)을 읽도록 명령한다. 아주 유명한 이 장면에서 벤케이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족자를 들고 읽는 척 시늉을 한다.

벤케이의 능력과 충성심에 감명을 받은 도가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렸지만 일행이 통과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그때 도가시의 수하가 세련되어 보이는 집꾼을 의심하게 된다. 요시쓰네가 변장한 것이었다. 벤케이는 도가시에게 이 집꾼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요시쓰네를 때리고 욕을 퍼부었다. 벤케이의 충성심에 다시 한번 감동

한 인정 많은 도가시는 그들이 떠나도록 허락을 한다.

검문소를 통과하자 벤케이는 그의 주인을 때린 것에 용서를 구하고 요시쓰네는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한다. 다른 인물들이 모두 무대에서 사라지고 벤케이는 ‘하나미치’를 따라 유명한 ‘롯포’ 출구에서, 검문소를 무사히 탈출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다.

사회극: 벤텐 고조

이 ‘세와 모노’(사회극)는 ‘벤텐 고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에도 시대 후기 최고의 극작가인 가와타케 모쿠아미(1816-1893)가 썼다. 원래는 5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보통 3, 4개의 막을 공연하고 가끔 5개 막 모두를 공연하기도 한다.

극은 사기꾼 벤텐 고조 기쿠노스케와 그가 속한 다섯 명의 도둑 일당을 묘사한다. 제3막에서 벤텐은 ‘사무라이’의 딸처럼 옷을 입고 그녀의 하인처럼 변장한 다른 도둑과 함께 옷감을 훔치기 위해 기모노 가게로 들어간다. 벤텐은 들치기를 한다고 부당하게 고발을 당해 점원에게 얻어맞자,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벤텐은 어깨의 문신을 보이면서 그가 범죄 자임을 밝힌다. 이때 벤텐의 말투와 행동은 귀족 집안의 젊은 여성에서 야비한 도둑으로 바뀌게 된다.

실은 벤텐을 고발한 ‘사무라이’도 도둑 일당의 우두머리인 닛폰 다에몬으로, 모두가 가게를 털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러나 일행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제4막에서 다섯 명의 도둑은 경찰에게 쫓겨 강둑으로 도망을 친다. 또 다른 명장면에서는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우산을 받쳐든 이 도둑 일당이 ‘하나미치’에서 중앙 무대까지 행진하며 자신들을 소개하고 무대 배경에서 있던 경찰들을 물리친다.

거의 공연되지 않는 제5막은 벤텐 고조가 고쿠라쿠지 절 지붕으로 혼자 도망치는 극적인 장면이다. 거기서 벤텐은 경찰을 물리치고 자살한다.